

단번 속죄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성경말씀: 히9:11-12

지난 금요일, 박정숙 자매님 모친, 강재구 형제님 장모님 김진선 어르신 초천 소식(*)

가만히 그분 얼굴을 떠올렸다.

올해 97세 김진선 어르신은 이북 땅에서 처녀 때부터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다가 결혼 후 6.25 피난 지역인 강화도 인근 양촌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다. 1967년도 "권신찬 목사님"의 3일 전도 집회를 참석하시고 "성경은 사실이다 ~ 예언과 성취"라는 복음 선포를 통해 단번 속죄 영원한 구원, 죄들의 용서, 다시 태어남의 기쁨을 얻고 지금껏 다음 말씀으로 영적 건강을 누리시며 젊은 저희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히9:11-12).

김진선 어르신, 피난 와서 어려움 많았지만 구원의 기쁨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도 매우 기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기뻐할 일이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뒤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구원이 흔들리면 믿고도 심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오늘 < >, 구원, 왜 어떻게, 영원히 구원받는 것의 의미

왜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이 왜 필요한가?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구원은 영원한가?

오늘은 왜 믿는가를 총정리하는 시간, 잘 아는 것도 시험보기 전에는 총정리,

가장 간단하게 답을 쓰는 사람이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

인간의 문제,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지금까지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 노아 홍수, 아브라함 이후에는 대부분 100세 이전에 다 죽는다.

인간은 죽으면 끝인가? 개나 소 같은 짐승도 죽는다.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두고 고심함. 여기에서 철학과 종교가 나온다. 철학과 종교는 인간 사고의

산물,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 종교 창시자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함

사실 그들 100%가 죽음이 무엇인지, 왜 생겼는지도 모른다.

소크라테스, 부처, 무함마드, 칸트, 니체 신은 죽었다. 프로이트, 찰스 다윈, 리처드 도킨스
기독교는 유일하게 죽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유한한 사람, 창조된 존재, 죽음을 겪어야 하는 사람의 창안물이 아니다.

사람은 창조된 존재이다. 그를 만든 창조자가 있다.

성경은 그 창조자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출3:14)

그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6일만에 창조하셨다(창1:1). 창조, 무에서 유로,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온 우주 공간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창1:26-27).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1. 영원히 사신다(불멸). 2. 죄가 없으시다(거룩하시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로 죄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우주 공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는 대적자들이

있다. 이들도 다 창조된 존재, 창조물이 창조자처럼 되려고 반역을 시도하다가 내어쫓김

하나님이 우주 공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에덴동산에 나타남

창3:1, 마귀는 심히 간교한 자

마귀의 인류 기만 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분의 진심을 왜곡하게 한다.

하나님의 명령: 창2:16-17

창3:1-6, 죄(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말씀을 거역하는 것)가 들어와서 전 인류가 타락함

전가의 원리, 첫 아담의 실패, 둘째 아담의 회복, 죄와 의 전가의 원리

그 결과 영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이 오게 되었다(3:19)

죽음: 분리되는 것, 영적인 죽음, 사람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한 마디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수태, 출생, 인생의 전 과정이 죄 가운데서 이루어짐.

육적인 죽음: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된다. 영적인 죽음, 이대로 두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구원받는다(요3:3, 5).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발표: 여자의 씨, 메시아 출생(창3:15)

오늘의 질문: 사람은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육적 죽음, 영적 죽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죄 문제를 해결하면 살 수 있다.

엡1:7 구원받는 것의 핵심,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이다.

왜 아담과 이브를 죄를 지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이것이 죄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2,000년이 지나서 BC 4000년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창15:1-6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창조자이므로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

의가 없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다.

이것이 가장 공평한 방법: 예수님의 표현 요1:11-13

빈부귀천, 남녀노소, 무식유식, 인종 상관없다. 오직 믿음만을 보신다. 히11:6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왜 은혜로 되는가?

시49:6-9

8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이 귀중하며 또 영원토록 멈추어 있다.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

인간의 것으로는 할 수 없다.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 거저 주어진다(공기 물, 부모님).

그래서 구원, 혼을 구속하는 일도 하나님이 거저 해 주셔야 한다. 이것이 은혜이다.

엡2:8-9,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2: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죄가 있는 자에게서 죄를 제거하려면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한다.

죄를 그냥 눈감아주면 하나님이 아니다. 죄를 처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이 사람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 대신 속죄하는 시스템을 알려 주심

창3:21,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기 위해, 가죽 옷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짐승의 피 레17:11,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히9:22,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요약

죽음의 문제, 죄, 죄를 해결하려면 대신 속죄, 피의 대신 속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족되어야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다.

구약은 예표와 상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함

짐승의 대신 속죄, 짐승은 불완전하다. 짐승의 피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한다. 잠정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테스트하는 것, 짐승의 피, 믿음대로 따르는지 보려고 하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

드디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목적: 끝없이 드리는 짐승 희생 폐지, 한 번에 영원한 대신 속죄 희생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동시에 만족

예수라는 이름, 마1:21,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1:23,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가?

인간의 혼을 구속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해서 사람이 못한다.

이제 드디어 예표들을 이를 완벽한 희생 예물,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 요1:29

그 어린양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음

다 이루었다(요19:30).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켰다.

구약 시대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 막15:38,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이제부터는 중간 매개체 제사장이 짐승 희생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음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갈 수 있음

히브리서의 단번 속죄, 영원한 구원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히9장 1-4, 구약 시대의 성막과 여러 기구들, 5절 너무 많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음

6-7,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공홀의 자리에 뿌림 속죄일, 7월 10일(지금의 10월 초), 레16:29, 16:14 공홀의 자리에 일곱 번 피를 뿌림

8 구약의 문제, 9 양심에 관한 한 깨끗하게 하지 못함, 완전하게 못함

10 개혁의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잠정적으로 부과됨, 개혁의 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때

11 자신의 몸 성막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13 구약 제사의 효력

14 양심의 정결

22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다.

히10:1, 4

10

11-13, 단번 속죄

14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심

10: 17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0:18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느니라.

단번 속죄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토록 속죄를 완전히 이루심

반복할 필요가 없음, 천주교 미사 안 됨. 주일 성수 예배 매주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히10:17-18,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그분의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신다.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엡4:30, 하나님의 기록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죄지음으로 구원을 읽으면 14, 17, 18이 안 된다.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다(히12).

또 아니냐 삼비라같이 심각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다.

결론

김진선 어르신,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기록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히9:12). 확신

인생이 기쁨도 슬퍼도, 힘들어도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한 자리가 하늘에 영원히 마련되어 있다.

나는 영원한 구속을 얻었다. 영원한 행복과 기쁨.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재물 부귀영화 명예, 중요하지만 영원한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받고 그 기쁨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